

#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세상의 중심엔 내 꿈이 있다
-----------------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 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 쪽
    - 언어와 매체 ..... 17~20 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글에 명시된 문자 정보를 해독하는 것을 넘어,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생략된 의미를 채워 넣는 추론적 의미 구성 행위이다. 글은 모든 정보를 명시적으로 담을 수 없으므로 추론은 독해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추론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응집성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응집성 추론은 문장 내에서, 혹은 문장이나 문단 간의 의미적 공백을 메워 글의 국소적인 연결을 돕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거나, 문장 내외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응집성 추론에 실패하면 독서의 흐름이 중단되므로, 이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동적이고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응집성 추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개입시켜 글 이면의 숨겨진 의도나 글 전체의 의미망을 파악하는 상황 모델을 구축하는 정교화 추론으로 나아간다. 글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정교화 추론은 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지만, 응집성 추론과 달리 독자의 인지적 자원이 크게 요구되며 모든 독서 상황에서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독자의 인지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글의 모든 정보에 정교화 추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에 주의를 할당하는 **초점화** 전략을 사용한다. 초점화는 독자가 목표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한 정보에는 인지적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한 정보에 대한 처리를 억제하는 기제이다. 독서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독자는 초점화의 대상을 유연하게 수정하거나 유지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초점화는 이러한 추론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이다. 독서 목적에 부합하여 초점화의 대상이 된 정보에는 인지적 자원이 집중되어 정교화 추론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 반면 초점화에서 배제된 정보라 할지라도 글의 맥락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집성 추론은 작동한다. 다만 초점화된 정보라 할지라도 글의 국소적 연결이 지나치게 난해할 경우, 독자는 응집성 추론에 인지적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된다. 이 경우 자원의 고갈로 인해 정교화 추론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독서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한정된 인지적 자원 내에서 초점화와 추론 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자의 배경지식은 글에 생략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 ② 문장 간의 의미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독서의 흐름이 중단될 수 있다.
- ③ 응집성 추론 없이 정교화 추론이 일어날 수 있다.
- ④ 정교화 추론은 많은 인지적 자원이 요구된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는 추론이 모든 독서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초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점화는 글의 정보량이 독자의 인지적 자원을 초과할 때, 정보의 객관적 중요도에 따라 주의를 차등적으로 할당하는 기제이다.
- ② 초점화는 응집성 추론의 실패로 인해 중단된 독서의 흐름을 복구하기 위해 특정 정보에 주의를 할당하는 기제이다.
- ③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독자는 이전까지 유지해 온 초점화의 대상을 그 정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 ④ 초점화의 대상이 된 정보에서는 응집성 추론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지적 자원의 소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초점화의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 정보는 정교화 추론을 거쳐 상황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보 기&gt;

학생 A는 '자전거의 발달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전거의 역사」라는 글을 읽고 있다.

[문장 1] 1880년대에 개발된 안전 자전거는 체인으로 뒷바퀴를 돌리는 방식이었다.

[문장 2] 이것은 이전의 자전거보다 균형을 잡기 쉬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었다.

[문장 3] 이후 여성들은 구동계에 엉키는 기존 복식의 형태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지가 분리된 활동복을 채택했다.

[문장 4] 바지를 입은 여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A가 [문장 1]과 [문장 2]를 초점화 대상에서 배제했다더라도, 구동 방식과 균형 유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응집성 추론은 일어났겠군.
- ② A가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문장 1]과 [문장 2]보다 [문장 3]과 [문장 4]에 주의를 집중했다면, 이는 무관한 정보의 처리를 억제하는 초점화 전략이겠군.
- ③ A가 [문장 3]을 초점화했다더라도 '형태적 제약'과 '하지가 분리된 활동복' 간의 의미적 공백을 메우는 데 인지적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했다면, 정교화 추론으로 진입하지 못하겠군.
- ④ A가 [문장 3]과 [문장 4]를 연결하여 복장 형태의 변화가 이동 범위 확장의 원인임을 파악했다면, 이는 상황 모델을 구축하는 정교화 추론이겠군.
- ⑤ A가 [문장 4]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이동 범위 확장이 사회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판단했다면, 이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한 정교화 추론이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후한 말 유교적 도덕 규범인 명교가 형식화되고 그 정당성이 흔들리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위진 시대의 지식인들은 현실 규범을 비판하거나 정당화할 형이상학적 근원을 탐구했다. 이들의 사유인 현학(玄學)은 '스스로 그러함'을 뜻하는 '자연(自然)'을 제도의 근거를 파악하는 중심축으로 삼았다.

초기 현학을 이끈 왕필은 만물의 본체를 특정한 형체가 없는 '무(無)'로 규정하고, 무의 상태를 자연이라 파악했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과 제도는 무에 바탕을 ㉠ 두고 성립한다. 왕필은 이를 통해 명교를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명교가 자연에 연원을 두어야 함을 역설했다. 예법과 음악을 통해 사회 질서를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는 예악과 같은 제도는 본래 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되었으나, 인간이 사사로운 의도로 억지로 꾸미거나 조작하는 인위가 더해지며 타락한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가 인위를 배제한 무위를 체득하여 자연에 순응할 때 만물은 고유한 본성을 보존한다. 무형의 근원이 현상을 포섭하듯, 통치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교의 질서는 만물을 낳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정쟁이 격화되며 명교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자, 혜강을 비롯한 죽림칠현은 왕필의 입장을 비판하며 자연주의를 내세웠다. 혜강은 명교를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허위적 가식으로 규정했다. 그는 인위적인 도덕 규범의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성정에 따를 것을 지향했다. 이는 명교와 자연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여 현실의 정치적 위계를 부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유가 사회적 질서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광상은 무를 근원으로 삼는 귀무론과 자연주의를 비판하면서 송유론을 제시했다. 그는 무가 사물을 낳을 수 있다는 발생론적 구도를 거부하고, 만물이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변화하는 독화 현상 자체를 자연으로 규정했다. 사물은 각기 고유한 본성인 분(分)을 지니며, 이 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이다. 광상은 군신과 부자라는 사회적 위계 역시 타고난 분의 필연적 발현이라 보았다. 명교가 인위적 억압이 아니라 자연의 양상이라는 것이다. 광상은 초월적 중심을 상정하지 않고도 위계적 질서를 만물이 각자의 본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 속에서 긍정했다.

(나)

명교와 자연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는, 제도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인위인지, 아니면 자연의 질서에 근거한 것인지를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송대의 주희는 이 문제를 유가적 도덕 원리의 틀 안에서 다시 설명했다. 그는 예와 제도의 근거를 무나 만물의 자발적 변화에서 찾지 않고, 보편적 도덕 원리인 이(理)에서 찾았다. 그에게 예와 제도는 외부에서 임의로 부과된 형식도 아니며,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는 관습도 아니었다. 예와 제도는 이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도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도리는 관계 밖에서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속에서 분별되어야 할 ㉡ 마땅함이었다.

주희에 따르면 이는 형체가 흔적으로 드러나는 사물이 아니지만, 사물과 인간관계 밖에서 따로 작용하는 초월적 실체도 아니다. 이는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하나의 보편 원리이되, 현실에서는 기(氣)를 통해 드러난다. 기는 사물이 구체적 형체와 성정을 갖추게 하는 조건이므로, 같은 이가 내재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사물의 기질과 관계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서로 다른 것은 각 관계마다 별개의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이가 관계와 처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마땅함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주희는 이를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논리로 설명했다. '이일'은 만물을 관통하는 도덕 원리의 보편성을 뜻하고, '분수'는 그 보편 원리가 개별 사물과 관계 속에서 달리 드러나는 양상을 뜻한다.

이일분수의 논리는 두 가지 치우침을 동시에 피하려는 것이었다. 이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면 서로 다른 관계와 처지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도리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반대로 분수만을 강조하면 현실의 차등이나 직분을 모두 도덕적으로 승인하는 데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주희에게 분수는 현실의 차이가 그대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관계에서 일정한 차등과 직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관계에 내재한 마땅함을 실현하는 것인지, 기질의 치우침이나 사사로운 욕망을 보존하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주희의 분수는 만물 각자가 저절로 그러하다는 사실의 승인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 수양은 외부 규범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아니라, 기질의 치우침과 사욕을 바로잡아 이가 행위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물과 관계에 내재한 이치를 따져 밝히는 일은, 이미 주어진 형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따라야 할 근거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억압하는 인위적 장식이 아니라, 형체 없는 이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절차와 질서로 구체화된 것이다. 다만 예가 관습화되어 그 근거인 이를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도덕 원리의 실현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따른다는 것은 정해진 형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관계의 마땅함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실천하는 일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교의 정당성이 흔들린 배경에서 자연 개념을 둘러싼 견해의 분화를 제시하고, (나)는 예와 제도의 형식이 관습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명교와 자연의 관계를 달리 파악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나)는 예와 제도의 근거를 유가적 도덕 원리의 틀 안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자연을 근거로 명교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한 입장들을 제시하고, (나)는 제도의 근거를 자연의 자발적 질서 속에서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자연 해석의 차이가 제도 이해의 차이로 이어지는 양상을 제시하고, (나)는 예와 제도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초월적 근원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들을 대비하고, (나)는 예와 제도의 성격을 도덕 원리와 분리해 관계 속 실천의 문제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5. (가)에 나타난 사상가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필은 '스스로 그러함'을 특정한 형체가 없는 만물 본체의 상태로 보았다.
- ② 왕필은 모든 사물과 제도의 바탕이 현상 세계를 포섭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가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혜강은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가식과 자연을 대립 관계로 보았으므로, 인간 본연의 성정이 드러나려면 도덕 규범이 자연적 근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광상은 군신과 부자의 위계를 타고난 분의 발현으로 보아, 명교를 만물이 본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필연적 양상으로 긍정했다.
- ⑤ 광상은 무가 사물을 낳는 발생론적 구도를 거부했으므로, 만물의 질서를 초월적 본체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전제를 부인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관계 속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이고, ㉡은 그것이 행위로 옮겨질 때 행위 주체의 조건에 의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 ② ㉠은 이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한 구체적 형식을 가리키고, ㉡은 그 형식을 관계에 맞게 실천하여 ㉠을 보존하는 일이다.
- ③ ㉠은 예와 제도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고, ㉡은 정해진 예의 형식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는 일이다.
- ④ ㉠은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바이고, ㉡은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는 조건이다.
- ⑤ ㉠은 관계에 따라 달리 확인되는 도리이고, ㉡은 각 관계의 직분과 차등을 그 도리에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7. 다음의 ㄱ~ㄴ 중 (나)의 **이일분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하나의 이가 모든 사물에 내재한다면, 구체적 조건의 차이는 규범의 차이를 낳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ㄴ. 보편적 도덕 원리가 전제되더라도 각 대상이 놓인 형편이 다르면, 서로 다른 규범이 그 원리의 분열 없이 성립할 수 있다.

ㄷ. 일정한 직분이 관계 속에서 오래 유지되어 왔다면, 그 직분은 관계에 따른 마땅함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직분의 차이는 각자가 놓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바를 드러내는 경우에 분수의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정약용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실학자 정약용은 예악과 명교를 천지자연에 본래 갖추어진 질서가 인간 사회에 드러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천지자연은 백성을 교화하려는 지각과 의도를 지닌 주체가 아니므로, 그것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제도가 곧바로 도출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에게 제도는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자연이나 도덕 원리의 발현 여부보다 그것의 제작 목적과 실제 운용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 또한 제도가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그 목적을 잃거나 폐단을 낳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정약용은 왕필이 명교를 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데 대해, 제도의 후천적 제작성을 자연의 질서로 설명한 잘못된 견해라고 비판하겠군.
- ② 정약용은 혜강이 명교를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가식으로 본 데 대해, 명교의 인위성은 포착했으나 그 통치상 기능을 간과했다고 평가하겠군.
- ③ 정약용은 광상이 사회적 위계를 타고난 분의 발현으로 본 데 대해, 인위적 제도를 자연적 본성의 결과로 오인했다고 비판하겠군.
- ④ 정약용은 주희가 예와 제도를 이가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본 데 대해, 제도를 성왕의 제작물이 아니라 도덕 원리의 발현으로 보았다고 비판하겠군.
- ⑤ 정약용은 주희가 이를 잃은 예를 정당화하지 않은 데 대해, 본래의 목적을 잃은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는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같이한다고 평가하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당장의 성과보다 절차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
- ② 연구진은 기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설명을 제시했다.
- ③ 위원회는 세부 쟁점을 뒤로 두고 큰 원칙부터 논의했다.
- ④ 그는 자료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회의실을 나갔다.
- ⑤ 두 집단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되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IS-LM 모형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을 직접 조절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과 생산, 소비, 투자와 같은 실물 경제 지표 간의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약화되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량 대신 단기 명목 이자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거시 경제 모형이 IS-MP 모형이다.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처럼 경제 전체의 지출 수요를 이루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며, IS-MP 모형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방향, 같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중앙은행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는 정도와, 실제 산출량에서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 능력인 잠재 산출량을 뺀 값을 고려하여 명목 이자율의 목표치를 정한다.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 한다. 앞의 값이 양수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보다 큰 상태를, 뒤의 값이 양수이면 실제 생산이 정상적인 생산 능력을 웃도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려면 중앙은행은 명목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 이때 명목 이자율의 인상 폭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폭보다 커야 하는데, 이를 테일러 원리라 한다. 테일러 원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질 이자율의 변동이 물가 상승 압력이나 경기 과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IS-MP 모형은 IS 곡선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반응을 나타내는 MP 곡선으로 구성된다. IS 곡선은 실질 이자율과 산출량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와 소비가 늘고 산출량이 증가하며, 그 변화 폭은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비례한다. 반면 MP 곡선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실질 이자율 조정을 반영하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이자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IS-MP 모형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대응은 두 경우로 구분된다. ㉠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변동하면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에 근거하여 그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는 실질 이자율을 설정한다. 이때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대응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선택되는 두 변수의 조합만 달라진다. 반면 ㉡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실제 인플레이션율 변동과 별개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면, 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도 실질 이자율을 이전보다 높게 설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대응 관계 자체가 달라지므로, 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 더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고 산출량은 감소한다.

IS-MP 모형은 거시 경제 충격에 따른 균형 변화도 설명한다. 소비 심리 개선과 같은 긍정적 총수요 충격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산출량 증가를 동반한다. 이에 중앙은행은 테일러 원리에 따른 실질 이자율 조정으로 총수요를 진정시키려 한다. 반면 대규모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부정적 총공급 충격은 생산비를 높여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명목 이자율을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 폭보다 크게 인상하면,

그 결과 투자가 더 위축되어 산출량 감소 폭은 충격 직후보다 커진다. 반대로 산출량 방어를 위해 명목 이자율 인상을 제한하면 총수요 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된다. 이처럼 부정적 총공급 충격 하에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산출량 방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다.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전통적인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조절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② 명목 이자율 인상 폭이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 폭 이하일 때 총수요 억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 MP 곡선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④ IS-MP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단기 명목 이자율 이외에 사용하는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 ⑤ 부정적 총공급 충격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목 이자율의 목표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두 값이 모두 양의 값이고 테일러 원리가 충족된다면, 투자는 위축되겠군.
- ②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때 명목 이자율도 같은 쪽으로 인하된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겠군.
- ③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을 그 상승 폭보다 작은 쪽으로 인상한다면, 소비가 늘겠군.
- ④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을수록 명목 이자율 인상에 따른 산출량 감소 폭은 작아지겠군.
- ⑤ 긍정적 총수요 충격에 대해 중앙은행이 테일러 원리에 따라 대응하면, 산출량은 충격 직후의 증가한 수준보다 낮아지겠군.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물가 안정 목표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겠군.
- ②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될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경우에만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겠군.
- ④ ㉠과 ㉡은 모두 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는 경우이겠군.
- ⑤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더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고,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아도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겠군.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부정적 총공급 충격을 받았다. 충격 전 두 나라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인 2%와 같았고, 실제 산출량은 잠재 산출량과 같았다. 충격 직후 두 나라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산출량이 감소하였다. 충격 직후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목 이자율은 두 나라 모두 충격 전 수준인 5%와 같았다. 표의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산출량은 중앙은행의 금리 대응 효과가 나타나기 전의 값이다. 이후 두 나라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산출량 방어를 고려하여 명목 이자율 목표치를 조정하였다. 단, 두 나라는 IS-MP 모형의 가정을 따르며,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조건은 동일하다.

국가	충격 직후 실제 인플레이션율	충격 직후 실제 산출량 (잠재 산출량=100)	충격 전 명목 이자율	정책 대응 후 명목 이자율
갑국	6%	97	5%	10%
을국	6%	97	5%	7%

- ① 충격 직후 두 나라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실질 이자율이 충격 전보다 낮아졌겠군.
- ② 정책 대응 후 갑국의 실질 이자율은 을국보다 높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총수요 억제 정도도 갑국이 더 크겠군.
- ③ 을국의 대응은 갑국의 대응보다 산출량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는 불리하겠군.
- ④ 두 나라에서 충격 직후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는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군.
- ⑤ 을국에서는 정책 대응 후 실질 이자율이 충격 직후보다 상승했으므로, 충격 전보다 투자와 소비를 더 강하게 위축시키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이다. 저장된 데이터가 임의로 변경되기 어려운 성질을 무결성이라 한다.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참여 컴퓨터인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 보유하고, 발생한 모든 거래를 검증한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보안성을 보장하지만, 참여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의 단위 시간당 거래 처리량인 확장성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노드와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그룹인 '샤드'로 나누어, 각 샤드가 자신에게 ㉡ 할당된 거래만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샤딩 기술이 도입되었다. 샤딩 네트워크의 전체 거래 처리량은 같은 시간 동안 각 샤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전체 노드 수가 일정하고 노드가 샤드에 고르게 배정된다고 할 때, 각 샤드의 노드 수는 전체 노드 수를 샤드 수로 나눈 값에 가까워진다. 이때 각 샤드의 처리 조건이 유사하다면 샤드 하나의 처리량은 샤드에 배정되는 노드 수가 감소한 비율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샤드의 수를 조절할수록 특정 샤드의 합의 과정이 조작될 위험성은 커진다.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에서 샤드 내 악의적 노드의 비율이 합의 장악 기준치를 넘을 때 해당 샤드의 데이터가 ㉣ 변조될 수 있다. 그런데 노드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 샤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각 샤드의 노드 구성이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 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샤딩 환경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샤드에 속하는 '교차 샤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샤드가 많아질수록 임의의 두 사용자가 같은 샤드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단일 샤드 거래에서는 하나의 샤드 안에서 상태 갱신이 ㉤ 확정되지만, 교차 샤드 거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샤드의 상태가 일관되게 갱신되어야 한다. 이때 상태란 계좌 잔고처럼 거래에 따라 갱신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교차 샤드 거래에서 송신자 샤드의 잔고 차감과 수신자 샤드의 잔고 증가가 하나의 거래처럼 묶여 처리되어, 둘 중 하나만 반영되는 비대칭적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성질인 원자성이 요구된다.

2단계 승인 메커니즘은 교차 샤드 거래에서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거래가 시작되면 송신자 샤드는 송신자의 잔고를 잠그고, 수신자 샤드에 수신 계좌의 유효성 검증을 요청한다. 수신자 샤드는 수신 계좌가 유효하면 그 계좌를 잠근 뒤 검증 성공 영수증을, 유효하지 않으면 계좌를 잠그지 않은 채 검증 실패 영수증을 송신자 샤드로 보낸다. 수신 계좌의 잠금은 송신자 샤드의 승인 또는 중단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 유지된다. 잠금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계좌를 수신 계좌로 삼는 다른 교차 샤드 거래의 유효성 검증 요청과 갱신은 처리되지 않는다.

송신자 샤드는 정해진 시간 안에 검증 성공 영수증을 수신하면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고 잠금을 해제한 뒤 수신자 샤드에 승인 메시지를 보낸다. 수신자 샤드는 이 메시지를 받은 후 수신자의 잔고를 증가시키고 잠금을 해제한다. 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검증 실패 영수증을 수신하거나 어떠한 영수증도 수신하지 못하면, 송신자 샤드는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지 않고 잠금만 해제하는 롤백을 ㉥ 수행한 뒤 중단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도달한 영수증은 반영하지 않는다. 중단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 샤드는 수신 계좌가 잠겨 있었다면 잔고 증가 없이 그 잠금을 해제한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노드가 동일 데이터를 보유하고 거래 검증을 나누어 수행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높다.
- ② 노드와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눈 기술에서 총 노드 수가 증가하면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③ 총 노드 수가 일정한 샤딩 네트워크에서 샤드 수가 늘어나면, 교차 샤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 ④ 같은 샤드에 속한 두 사용자 간 거래에서도 서로 다른 샤드의 상태 갱신을 조율해야 한다.
- ⑤ 2단계 승인 메커니즘은 교차 샤드 거래에서 샤드 내 합의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샤프별 거래량이 줄어, 합의 장악 기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② 교차 샤프 거래가 늘어, 샤프 내 합의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 ③ 샤프별 노드 수가 줄어, 무작위 배정에 따른 노드 구성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전체 노드 수가 줄어, 선의의 노드가 합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⑤ 악의적 노드가 특정 샤프에 배정되도록, 무작위 배정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다음은 샤프팅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두 교차 샤프 거래 ㉠과 ㉡의 처리 보고서 일부이다. 교차 샤프 거래에서 송신자 샤프가 검증 성공 영수증을 기다리는 정해진 시간은 거래 시작 시각부터 5분이다. 두 거래의 송신자 계좌에는 잔고가 충분하다.

시각	처리 기록
10:00:00	㉠: 거래가 시작되어, 샤프 X가 송신자의 잔고를 잠그고, 샤프 Y의 수신 계좌 p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요청함.
10:00:20	㉠: Y가 p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검증 성공 영수증을 X로 보냄.
10:05:00	㉠: X의 검증 성공 영수증 수신 기록 없음.
10:05:30	㉡: 샤프 Z가 보낸 p에 대한 유효성 검증 요청이 Y에 도달함.
10:06:00	㉠: Y가 보낸 검증 성공 영수증이 X에 도달함.
10:06:20	㉠: X가 보낸 중단 메시지가 Y에 도달함.

- ① ㉠에서 10:05:00이 지나면 X는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지 않은 채 잠금을 해제하겠군.
- ② ㉠에서 p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0:05:30에 Y는 Z에게 ㉡의 검증 성공 영수증을 보내겠군.
- ③ ㉠에서 10:06:00에 검증 성공 영수증이 X에 도달하더라도, X는 이를 근거로 승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군.
- ④ ㉠에서 10:06:00에 검증 성공 영수증이 X에 도달한 시점에도, Y의 p 잠금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겠군.
- ⑤ ㉠에서 X의 중단 메시지가 10:06:20에 Y에 도달하면, Y는 수신자 잔고 증가 없이 p의 잠금을 해제하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니고
- ② ㉡: 배정된
- ③ ㉢: 조작될
- ④ ㉣: 판정되지만
- ⑤ ㉤: 실행한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청허선사(淸虛禪師)는 전란으로 무너진 강도에서 참혹하게 죽은 백성들의 시신을 거두어 주다가, 달 밝은 밤 연미정 기슭에서 비몽사몽간에 기이한 광경을 엿보게 된다.

청허선사는 몹시 이상히 여겨 가만가만 다가가 엿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부녀자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시퍼런 칼날이 선지피가 엉긴 채 뼈에 박혀 있었다. 또 뺨골이 참혹하게 분쇄되었는가 하면,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숭했다. 이 끔찍스런 참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 한 여자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종묘사직이 전란을 입은 참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구태여 그 이유를 따지고 든다면 우리 낭군의 죄이겠지요. 태보의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강도의 중책을 제 자식에게 맡겼지요. 자식 놈은 중책을 잇고 밤낮 술과 계집 속에 파묻혀 마음껏 향락에 빠졌습니다. 깊은 강, 험한 요새를 갖고도 대사를 그르쳤으니 죽어 마땅하지요. 나는 뗏목이 자결했다고 자부하나, 제 자식 놈이 큰 죄를 지었으니 쌓인 원한이 잊을 날이 없군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 한 부인이 단정히 앉으며 말을 가로챘다.

“제 낭군은 험한 지리만 굳게 믿어 군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강을 휩쓰는 비바람에 사직이 무너졌으니 낭군은 도끼로 목이 잘려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장 이민구는 저의 낭군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어찌 성명을 보전하여 제 명대로 살았습니까? 도원수 김자점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위틈에 숨어 구차한 목숨을 보전했고요. 군율을 몸소 행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은총이 깊었습니다. 유독 낭군님만이 홀로 죽음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까?”

그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 한 부인이 뛰어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도록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나는 대신의 아내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적군이 아직 밀려오기도 전에 자식의 강권에 못 이겨 칼을 들어 죽었으니 어찌 세상의 여론이 없었겠습니까. 억지 정절을 만들어 정문(旌門)을 세웠으니 모두가 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오.”

또 한 부인이 내달아 양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개연히 탄식하며 말했다.

“낭군이 상감마마를 모셔 당대의 총신이라 일컬어졌으나, 한 번 싸워 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 구차한 죽음을 면했습니다. 저승의 염라대왕이 사자에게 ‘너는 큰 화를 입기 전에 자결했으니 진실로 가상하다. 그러나 너의 남편이 임금의 은혜를 잊고 구차히 생명을 도모했으니 연좌됨을 면하기 어렵다. 지옥에 던져 영영 인세에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내 이 슬픈 회포가 어떻겠어요.”

(중략)

슬픈 회포를 미처 다 말하기도 전에 또 ㉣ 한 사람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빼어난 풍채는 여자 중의 장부였다. 강개하여 말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몇 번이나 살겠다고 그 야단인지요.

벼슬아치로서 상감마마의 녹을 먹으며 국은이 막중했지요. 그러나 창황한 즈음에 오직 살기만을 좋아하고 죽기를 두려워서 기꺼이 적의 종이 되었지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상투를 잘라내 버렸으니, 그 꼬락서니가 오죽했겠습니까. 정묘년의 호란 때, 강화를 주장하여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에는 진실로 까닭이 있었습니다. 선인(先人)의 유골을 팔아 사함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일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슬프외다.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이 어찌 비명에 죽어 버린 나와 같으리오.”

(중략)

이런 중에 또 한 부인이 끼어들었다. 혀끝으로 토해 내는 말마다 의리에 사무쳐 단연 으뜸이었다.

“산과 강을 험하다고 믿고 적을 하찮게 여겼으니 그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련 없이 자결하여 구천에 들었으나 그 이름은 세상에 떨쳤습니다. 이때 염라대왕이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갑자년의 변고에는 원혼들의 목을 벨 것을 주장했고, 정묘년의 난리에는 화의(和議)를 배척하여 대의명분을 세웠으니 이는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 또한 그 아버지의 절개를 본받아 절의로 죽었으니 **극락세계**에서 달밤을 즐기게 하리라.’ 참으로 시아버지의 덕이 아니었다면 어찌 천부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제각기 처참한 몰골로 원통한 사연을 쏟아내며 대성통곡하는 가운데, 눈동자가 셋별같이 유난히 빛나고 삼단 같은 머리를 한 기생이 방긋 웃으며 나선다.

㉠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첩은 기생이라. 외람되게 여러분들의 곁에 끼어 다행히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절의의 높으심과 정렬의 아름다움은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몸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국치가 임박하였지만 충신 절사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녀자만의 정절이 늙름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영광스런 죽음이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설위하십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좌중의 여러 부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소리는 참담하기 그지없었고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선사는 혹시나 알아차릴까 두려워 숲 속에 숨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가, 날 새기를 기다려 물러나오다 별안간 깨어 보니 한 꿈이었다.

- 작자 미상, 「강도몽유록」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이 기이한 장면을 엿보는 과정을 따라 다른 인물의 사연을 제시하여, 전란의 참상과 원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전란 이후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인물들의 책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과 꿈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한 인물의 혼란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존재들의 외양을 희화적으로 묘사하여, 전란의 참혹함을 기이한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19. 윗글의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도’는 전란의 참상이 원혼들의 원한으로 되살아나는 공간이다.
- ② ‘연미정 기슭’은 산 자가 죽은 자들의 사연을 마주하는 공간이다.
- ③ ‘성문’은 구차한 생존을 택한 인물의 행적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지옥’과 ‘극락세계’는 죽음의 의미가 사후에 평가되는 공간이다.
- ⑤ ‘숲 속’은 선사가 원혼들의 사연을 헤아리려 물러선 공간이다.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강도몽유록』에는 여러 인물의 발화가 나오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의 발화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발화자	거론대상	발화의 기능
① 가	낭군과 자식	강도 수비 실패의 책임을 가문 내부에서 찾음.
② 나	처벌을 피한 위정자들	처벌의 불균형을 들어 원통함을 드러냄.
③ 다	자식	자신의 죽음이 자의적 순절이 아니었음을 드러냄.
④ 라	구차하게 살아남은 자	절의의 관점에서 비겁한 생존을 비판함.
⑤ 마	정절을 지킨 부인들	부인들의 정절을 충신 절사의 행위로 평가함.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강도몽유록』은 전란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배층의 무능과 책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의 발화는 가문 내부의 책임 관계에 얽혀 있으며, 여성의 죽음에 대한 사후 평가도 남성 가부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되어 제시된다. 이처럼 작품은 지배층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절과 정절을 중시한 당대 이념의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 ① 낭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식의 일탈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지배층의 책임 비판이 가문 내부의 책임 관계와 얽혀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책임이 있으면서도 처벌을 피한 위정자들을 거론하는 것은, 지배층의 무능 비판이 자기 가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발화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자식의 강권으로 죽었으면서도 정절로 표창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은, 정절의 가치가 여성의 희생을 명예화하는 당대 이념으로 작동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국은을 입고도 구차하게 살아남은 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죽음을 내세우는 것은, 충절과 정절의 가치에 기대어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발화로 볼 수 있군.
- ⑤ 아버의 척화 명분을 본받았다는 평가는, 여성의 사후 평가가 남성 가부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되어 그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기능함을 보여 주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나)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어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다)

조화의 공이라는 것도 음양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음양의 수역시 기우(奇偶)일 따름이다. 양의 수는 '홀(奇)'이니 홀은 외롭게 마련이고, 음의 수는 '겹(偶)'이니 겹은 짝이 있게끔 되어 있다. 이를 유추하여 사물에 적용해 보면, 홀은 어울리기 어렵고 주체성이 강하며 도와주는 이가 없는데 그 부류는 속성상 군자가 되고, 겹은 서로들 빌붙으며 기회 포착을 잘하고 원조해 주는 이가 많은데 그 무리는 속성상 소인이 된다.

그런데 사람의 보편적 정서로 볼 때 이익을 좋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의리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기만 하다. 이런 까닭에 너나 할 것 없이 겹에 속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홀의 처지가 되는 것은 꺼리고들 있는 것이다.

오천 정자용이 자기 거처를 기암(畸菴)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기(畸)'는 바로 홀이라는 기(奇)의 뜻과 같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에게 힐문하기를,

“대저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데, 어찌하여 그대만 유독 이를 취하여 자호로 삼는 것인가. 그리고 그대로 말하면 무척이나 기의 환경 속에 떨어져 있다고 할 것인데, ㉦어찌하여 그만 염증을 내고 청산해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하였더니, 자용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유독 기의 처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취한 것일 따름이다. 지금 내가 만약 아름다운 이름을 도둑질하고 그럴듯한 호칭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으스대려고 한다면 어찌 안 될 것이 있기가 하겠는가마는, 어떻게 내가 감히 실상을 숨기고 거짓 칭호를 가탁하여 식자들의 꾸지람을 중하게 자초할 수가 있겠는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홀륭하다, 자용의 뜻이여. 곤궁한 처지에서 자신의 신조를 바꾸지 않고 지조를 굳게 지키니, 그 명호(名號)를 보기만 하면 그가 바로 그런 인물임을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중략)

장주는 말하기를 '기인(畸人)이란 세속과는 맞지 않지만 하늘과는 화합하는 사람이다.'고 하였다. 대저 세속과는 맞지 않아도 하늘과 화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고 할 것인데, 더더구나 또 두 가지를 모두 얻으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자용은 힘쓸지어다.”

하였다.

- 장유, 「기암기(畸菴記)」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대상과의 거리감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병렬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정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나 처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부재한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교차하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의 열망이 현재의 화자를 붙드는 공간이고, ㉡는 대상의 부재가 남긴 쓸쓸함을 지워 내는 공간이다.
- ② ㉠은 혁명의 열망이 남겨진 상실의 공간이고, ㉡는 사라짐 뒤에 존재가 새롭게 떠오르는 공간이다.
- ③ ㉠은 실패한 의지를 다시 회복해야 할 공간이고, ㉡는 대상의 부재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 ④ ㉠은 과거의 노래를 남겨 둔 공간이고, ㉡는 사라진 대상을 대신 채우는 위안의 공간이다.
- ⑤ ㉠은 상실을 통해 내면의 충만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고, ㉡는 세속의 소리를 끊어 내어 고요만을 보존하는 공간이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떠나온 공간에 남은 명령을 통해, 과거의 실천 의지가 현재의 삶을 계속 이끌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는 상반된 감각을 대비하여, 좌절 이후 의지의 흔적 대신 씩씩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은 보이지 않게 된 것의 뒤에서 또 다른 여백이 일어나며, 사라짐이 이어지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④ ㉣은 타자 곁에 남고자 하는 소망에 앞서, 화자의 내면이 정리된 상태를 전제함을 드러낸다.
- ⑤ ㉣은 질문자가 자용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할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시간적 계기의 배열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인식 조건으로 제시되고, 현재의 인식은 과거 경험을 수용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진술은 현재의 인식이 향하는 방향을 드러낸다. 이때 시간적 계기의 배열이 사건의 순차적 진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가)에서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한 것은,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현재의 화자가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에 이어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고 한 것은, 과거의 좌절이 현재의 자기 인식 속에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를 떠올린 뒤 '석양 무렵'에 동산에 올라가는 것은, 부재한 대상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시적 상황을 여는 계기로 제시됨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홀려홀려 바다로 들어가고'라고 한 것은, 현재의 화자가 이전 삶의 흔적이 사라진 뒤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에서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에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모습으로 남고자 한 것은, 현재의 화자가 미래의 자신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자용의 거처에 붙인 이름을 풀이하며,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인물의 처지와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통념상 꺼려지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 자용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평가하고 있다.

- ① 음양의 수에서 '기'와 '우'를 끌어와 각각의 속성을 나눈 것은, '기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사물의 이치 속에서 풀이하기 위한 것이군.
- ② 사람들이 '우'를 선호하고 '기'를 꺼린다고 한 것은, 자용이 받아들인 이름이 세속의 일반적 선호와 어긋나는 것임을 드러내는군.
- ③ 자용이 '기'의 처지를 사양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감추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글쓴이가 자용의 뜻을 훌륭하다고 한 것은, 곤궁한 처지에서도 '신조'와 '지조'를 지키는 태도를 그 명호의 의미와 연결한 것이군.
- ⑤ 장주의 말을 인용한 것은, 세속과 맞지 않음과 하늘과의 화합이라는 두 조건이 균형을 이룰 때 '기'의 처지가 긍정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 강점기, 일본인 상점의 사환으로 일하는 ‘나’는 일제에 동화되어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이라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에 다녀와 폐병을 앓고 있는 ‘아저씨’를 한심하게 여겨 늘 비난한다.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우.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렀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으로 바느질을 해 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가서 드러누웠어요. 그런데 보니깐, 어디서 모두 뒤져 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언문 잡지**를 수북이 쌓아 놓고는 그걸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 들고 떠들어 보았더니, 뭐 읽을 맛이 나야지요. 대체 죄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그 꼬락서니로 해 놓는지. 사진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그리고는 맨판 까탈스런 한문 글자로 다 거칠거칠히 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이고? ㉠ 더구나 우리 같은 높은 언문도 그런대로 뜯어보기는 보아도 읽기에 여간만 께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언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은 뜻을 몰라 못 보지요. ㉡ 잡지야 뭐 『킹구』나 『쇼넝구라부』 덮어 먹을 잡지가 있나요. 참 좋아요. 한문 글자마다 가니를 달아 놓았으니 어떤 대문을 척 펴 들어도 술술 내리읽고 뜻을 행하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대문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나는 소설이지요.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죄선 사람들은 제엔장 큰소리는 곧잘 하더구면서도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 내니!

그날도 글씨 잡지가 그 꼴이라, 아예 글은 볼 멋도 없고 해서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하고 책장을 후르르 넘기노라 니깐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나요! 하도 신통해서 쓰윽 펴 들고 보았더니 제목이 첫줄은 경제, 사회…… 무엇 어찌구 잔주를 달아 놔겠지요. 그것만 보아도 벌써 그럴 듯 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단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것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뭐, 보나 안 보나 속이야 빠안하지요. ㉢ 대학교까지 가설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은 않고서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르코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 댔을 거니까요.

아무렇든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 볼 양으로 쓰윽 훑어봤지요. 그러나 웬걸 읽어 먹을 재주가 있나요.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 보아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속이 상하길래 읽어 보자던 건 작파하고서 아저씨를 좀 따잡고 몰아세울 양으로 그 대목을 차악 펴 냈지요.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가 여기다가 경제 무어라구 쓰구, 또 사회 무어라구 썼는데, 그러면 그게 경제를 하란 뜻이오?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오?”

“뉘?”

못 알아듣고 뚜렛뚜렛해요. ㉣ 자기가 쓰고도 오래 돼서 다 잊어버렸거나, 혹시 내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심쩍

대답이 안 나왔거나 그랬겠지요. 그래 다시 조곤조곤 따졌지요.

“아저씨…… 경제란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라는 것 아니오? 그런데, 사회주의란 것은 모아 둔 부자 사람의 돈을 빼어 쓰는 것 아니오?”

“이애가 시방!”

“아니, 들어 보세요. 경제란 건 돈 많이 벌어서 애껴 쓰구 나머지 모아 두는 게 경제 아니오?”

[B]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학이니 경제학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를 게 무어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아니란다. 혹시 이제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근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C]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 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 년이나 했으니 그게 무어란 말이오?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구두 왜 돈을 못 모으냐 했더니, 인제 보니깐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거 봐요 글씨. 단박 꼼짝 못하잖나. ㉤ 아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깐 글씨…….

- 채만식, 「치숙」 -

\* 망가: 만화의 일본식 표현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두 잡지를 대비하며, 낯선 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인물이 상대의 글을 읽지 못하자, 상대의 설명을 듣고 처음의 추측을 거두는 과정이 나타난다.
- ③ 용어의 뜻을 둘러싼 문답을 통해, 인물의 오해가 해소되고 견해 차이가 좁혀진다.
- ④ 상대의 웃음과 동의 표현을 계기로, 인물이 상대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 ⑤ 인물이 글의 일부 표현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고, 상대의 반응을 자신의 짐작이 맞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28. **언문 잡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에는 인물의 부정적 평가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 상대의 이름이 발견되며 장면의 초점이 상대의 글로 옮겨가게 한다.
- ② 인물이 무료함 속에서 펼쳐 보는 대상으로, 아주머니의 부채를 확인한 상황에 장면의 초점이 머물게 한다.
- ③ 인물이 일본 잡지와 대비해 평가하는 대상이지만, 그 대비가 상대의 글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 ④ 상대의 이름이 실린 대상이 포함되어, 인물이 상대의 글을 읽으려는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게 한다.
- ⑤ 상대가 머리맡에 쌓아 둔 대상으로, 상대가 자신의 견해를 먼저 내세우는 상황을 마련한다.

29.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제목에 나타난 말을 나란히 놓아, 상대의 글을 어느 한쪽을 권하는 글로 좁혀 묻는다.
- ② [B]에서 인물은 익숙한 쓰임에 기대어 말의 뜻을 한정하고, 상대는 그 말의 쓰임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 ③ [C]에서 인물은 상대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설명을 상대의 배움을 문제 삼는 말로 바꾸어 제시한다.
- ④ [A]와 [B]에서 인물은 상대의 글과 말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고, [C]에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세운다.
- ⑤ [B]에서 상대는 말의 쓰임을 구별해 인물의 이해를 바로잡으려 하고, [C]에서 인물은 그 구별을 바탕으로 상대의 설명을 보완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물에게 초점화된 서술은 그 인물의 관찰과 판단을 사건 이해의 통로로 삼게 한다. 이때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관화하거나, 상대나 대상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경우, 독자는 그 판단을 따라가면서도 그 인식의 편향을 파악하게 된다. 「치숙」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말이 아저씨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드러난 ‘나’ 자신의 무지와 식민지적 가치관을 비판하게 한다. 아저씨의 말과 태도는 ‘나’의 통속적 기준과 구별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 자신의 읽기 어려움을 우리 같은 놈의 어려움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조선 잡지에 대한 불만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면서도 ‘나’의 의미 이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군.
- ② ㉡: 자신에게 익숙한 읽기 편의를 기준으로 대상을 평가함으로써, 일본 잡지를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식민지적 가치관을 드러내는군.
- ③ ㉢: 아저씨의 학력과 행적을 돈벌이에 실패한 삶으로 평가함으로써, 아저씨를 개인적 무능의 차원에서 낮추어 보는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상대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관화함으로써, 아저씨가 즉각 대답하지 못한 상황을 자신의 말이 까다로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 상대의 학식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아저씨의 지식인적 면모가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는 ‘나’의 시선을 드러내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에 유락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입에게 득죄한가  
 입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한가  
 내 얼굴 곱던지 질투할손 못 여자로도  
 유한한 이내 몸을 ㉠ 요사타 이르노쇠  
 참언이 망극하니 입이신들 어이할고  
 우리 입 날 믿기야 세상에 뉘 비할고  
 고신원루\*를 한수에 가득 뿌려  
 입 향한 일편단심 참고 참아 떠나가니  
 내 마음 이러할 제 입이신들 잊을손가  
 호남 길 더위잡아 노령에 올라 쉬며  
 북으로 돌아보고 두세 번 탄식하니  
 ㉡ 뜯구름이 해를 가려 서울을 못 볼로다

(중략)

중야에 잠이 없어 이불 안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자탄하고 평생을 어루만져 생각하니  
 고아처럼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내요  
 독기 찬 바다에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뉘 있으며  
 반계에 옛 초가집 비워 둔들 뉘 지킬고  
 임금께서 하사하신 천 권 책을 고각에 못 거시니  
 좀벌레가 다 먹은들 뉘라서 ㉢ 포쇄\*하며  
 평천장 만원화를 앞서 벤들 뉘 금할고  
 천하에 무고하니 나밖에 또 있을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허물을 폼아보니  
 ㉣ 우직함이 본성이요 미친 듯 망령됨도 내 죄오나  
 근본을 생각하니 입 위한 정성일새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비취 보실가  
 생성하신 이 은혜를 결초하기 기약하나  
 상자 속의 ㉤ 가을 부채가 어느 날 다시 날고  
 맑은 새벽에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살리  
 연잎으로 옷을 짓고 연꽃으로 치마 지어  
 상자 속에 두어 둔들 놀 위하여 단장할고  
 고국에 돌아갈 꿈 푸른 바다 막혀 있고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한 집당에서 수답이 메아리 같으니  
 자리 당겨 귀신 문던 가태부\* 이 같을까  
 어촌의 먼 닭 소리 긴 잠을 깨달으니  
 우리 입 옥음은 껏가에 완연하고  
 우리 입 어로향이 소매에 품겨 세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참인 것 삼을손가  
 입께서 뜻 돌리시길 남은 날 기대하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 \* 포쇄: 책을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일.
- \* 백두음/장문부: 임의 사랑을 잃은 여인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고사.
- \* 가태부: 억울하게 쫓겨났으나 훗날 황제의 부름을 받아 국사를 논한 한나라의 충신 가의.

(나)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피헤 매게 쪼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빠 지고 바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자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쁜디 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 적막 가치노을\* 멧는디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다가 가을하리오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농총: 배에 쓰는 줄.  
\* 가치노을: 저녁노을.

(다)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手)지니 해동청(海東靑) 보라매 쉬어 넘는 ㉡고봉  
(高峰) 장성령(長城嶺)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이동 경로에 따라 시선이 옮겨 가는 과정을 제시하여, 공간의 안정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비유적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가 바뀌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유사한 처지를 지닌 대상을 잇달아 제시하여, 화자가 겪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황이 차츰 악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다)는 같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그 공간의 편안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덧씌워진 평가로, 화자의 처지가 남의 말로 인해 그릇되게 받아들여졌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② ㉡은 시야를 가리는 자연물로, 떠나는 길에서도 서울을 향한 시선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드러낸다.
- ③ ㉢은 책을 돌보는 행위로, 입에게 받은 물건조차 방치될 수 있다는 염려를 드러낸다.
- ④ ㉣은 화자의 성품에 대한 판단으로, 자신이 겪은 잘못을 타고난 성정에서 비롯된 일로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은 쓰임을 잃은 물건으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며 다시 쓰일 날에 대한 기대와 연결된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다른 대상에게 쫓기는 대상이고, ㉡은 여러 존재들이 쉬어 넘는 공간이다.
- ② ㉠은 외부의 위협을 피해 숨어든 대상이고, ㉡은 화자가 이미 지나온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비슷한 대상이고, ㉡은 화자의 머무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④ ㉠은 바다에서 위태로워진 대상이고, ㉡은 임의 부재를 확인하게 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달하려는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시가에서 화자의 처지나 정서는 직접적으로 진술되기보다 구체적 사물, 공간, 행위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이때 특정한 장소나 상황은 화자가 놓인 처지를 환기하는 장치가 되고, 사물의 나열이나 반복적 표현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구체적 장면 속에서 부각한다. 또한 고사나 비유적 소재는 화자의 처지를 다른 대상의 처지와 관련지어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한수'를 지나고 '노령에 올라' 북쪽을 돌아보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이동 상황을 통해 화자가 놓인 처지를 환기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반계'의 '초가집'과 '임금께서 하사하신 천 권 책'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이 돌보지 못하게 된 대상들을 통해 화자의 염려를 구체화하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화자가 '가을 부채'와 '백두음', '장문부'를 떠올리는 것은, 고사나 비유적 소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의 '가토리'와 '수적 만난 도사공'을 이어 제시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를 다른 대상의 처지와 관련지어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화자가 '바람', '구름', 여러 '매'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가 대상들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입에게 이르려는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생명과학 시간에는 동물의 신체적 방어 기제에 대해 배웠는데요, 혹시 배가 아플 때 스스로 자연물을 먹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야생 동물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처음 듣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동물의 자가 치료 현상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섭식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침팬지입니다. (자료 ㉠ 제시) 화면은 침팬지가 먹는 아스필리아 잎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잎 표면에 미세하고 뾰뾰한 털들이 보이시죠? 침팬지는 장내 기생충 감염이 심해지면 잎을 씹지 않고 삼킵니다. 그러면 잎이 소화액에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고, 잎 표면의 털들이 기생충을 엮어매어 함께 배출시킵니다. 식물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마코입니다. (자료 ㉡ 제시) 이 자료는 마코가 진흙을 먹는 모습과 소화관 내 결합 모식도를 담고 있습니다. 덜 익은 과일의 씨앗에는 독성 물질이 많지만, 진흙 속 점토 광물은 음전하를 띠어 소화관에서 양전하를 띠는 독성 물질과 결합합니다. 그 결과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되어 중독을 막습니다. 즉, 진흙이 일종의 해독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은 숲붉은개미입니다. 이 개미들은 침엽수에서 송진을 물어와 개미탑에 놓습니다. 송진에도 항균 물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원성 곰팡이를 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자료 ㉢ 제시) 그래프를 보면, 송진 단독일 때보다 개미산과 송진이 섞였을 때 곰팡이 억제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개미산이 송진과 섞이면 송진 속 항균 물질이 더 잘 녹아 나와 항균 작용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연 속 물질의 물리적 구조와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냅니다. 제 발표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사례의 한계를 비교하여 발표의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발표의 세부 목차를 미리 제시하여 내용 예측을 돕고 있다.
- ⑤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침팬지가 삼킨 잎의 표면 구조가 장벽에 붙은 기생충을 엮어매어 배출시키는 소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② ㉠은 침팬지가 씹지 않고 삼키는 식물의 잎 표면에 미세하고 뾰뾰한 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③ ㉡은 앵무새들이 진흙을 섭취하는 모습과 함께, 소화관 내부에서 점토 광물과 독성 물질의 분자가 결합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④ ㉢은 송진에 개미산이 섞였을 때가 송진 단독일 때보다 병원성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급격히 높아짐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⑤ ㉢은 개미가 자연에서 구한 물질과 스스로 분비한 물질이 섞일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항균 작용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활용되었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마코 앵무새의 진흙 섭취가 미네랄 보충 목적도 있다고 다큐에서 봤어. 그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면 섭취 목적을 더 잘 이해했을 텐데 아쉬워.

**학생 2:** 개미산이 송진의 작용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어. 이번 주 생태 동아리의 '자연계 상호 작용' 발표 자료에 이 사례를 추가해야지.

**학생 3:** 잎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해 기생충을 엮어댄다니 놀라워. 우리 집 강아지도 가끔 뾰뾰한 풀을 먹고 토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지 찾아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떠올려, 설명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사례를 자신의 경험에 대입하여,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 설명을 반박할 새로운 근거를 찾으려 하고 있다.

[38~42] (가)는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들은 학생회 임원들의 대화이며, (다)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트렌드를 짚어보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한 목적이나 취향을 중심으로 짧게 모였다 흠어지는 이른바 '느슨한 연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학 전문가를 모시고 이 현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청소년들이 왜 이런 방식의 모임을 선호하는 걸까요?

**전문가:** 네, 과거에는 소속감과 강한 유대감을 중시하는 장기적인 모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환경 보호 챌린지 하기', '주말에 모여 특정 작가의 소설 읽기'처럼 명확한 목표가 달성되면 부담 없이 해산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죠.

**진행자:** 그렇군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걸까요?

**전문가:** 물론 장점이 큼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관심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모임에 쉽게 참여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만남에 그치다 보니,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거나 갈등을 조율하며 성장하는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나)

**학생 1:** 애들아, 어제 공유한 라디오 방송 들었지? 방송에 나온 청소년들의 모임 성향 변화를 보니, 우리 학교 자율 동아리 운영 방식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한 번 가입하면 1년 내내 활동해야 해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

**학생 2:** 맞아. ㉠ 지난달 학생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장기 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율 동아리 가입을 망설였다고 답했어.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특정 주제로 단기간 활동하고 해산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학교에 건의하자.

**학생 3:** 취지는 공감해. 하지만 ㉡ 방송에서 전문가가 지적한 한계점도 무시할 수 없어. 단기 동아리만 성행하면, 1년 동안 부원들과 갈등을 조율하며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존 자율 동아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잖아.

**학생 1:** ㉢ 네 우려도 타당해. 그렇다면 기존의 1년 단위 연간 동아리 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짧게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건 어때? 한 학기보다 짧아서 시험 기간을 피하거나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부담도 훨씬 적을 거야.

**학생 3:**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면 동의해. 그런데 단기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기면 지도 교사를 섭외하고 배정하는 게 당장 큰일일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학생 2:** ㉣ 단기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보다 선생님들의 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우리 학생회 산하의 '동아리 운영 위원회'가 활동 계획서를 꼼꼼히 사전 심사하는 자치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건의문에 넣자. 그러면 학교 측의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거야.

**학생 1:**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 단기 활동이 자칫 일회성 경험으로 흠어지지 않도록, 활동 종료 후에는 반드시 성찰 일지를 제출하거나 교내 게시판에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자.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

**학생 2:** 그래. 그럼 내가 설문 조사 결과 정리해서 줄 테니, 네가 건의문 초고를 작성해 줄래?

(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학생들의 성향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학교의 '자율 동아리 운영 규정'을 일부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의 취향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짧게 모였다 흠어지는 '느슨한 연대' 방식의 단기 모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이러한 유연한 모임 방식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의 1년 단위 자율 동아리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변화한 활동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생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65%가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장기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동아리 가입을 주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기존의 연간 동아리 제도를 유지하면서,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짧게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 제도를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은 한 학기보다 짧아 시험 기간 등 학사 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동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참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활동이 자칫 피상적인 경험으로 끝날 수 있고 지도 교사 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동아리는 활동 종료 후 성찰 일지 제출이나 결과물 공유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돌아보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학생회 산하에 '동아리 운영 위원회'를 두어 직접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데 학생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고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형 자율 동아리'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8. (가)와 (나)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경험을 바탕으로 화제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합의된 기준에 따라 현상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를 확인하며 논의의 쟁점을 좁히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각자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며 목표를 수정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39.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그 제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③ ㉢: 상대의 우려를 수용하며, 기존 제도의 운영 목적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예상되는 운영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학생회의 역할을 포함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단기 활동의 한계를 예상하고, 활동 이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40. (가), (나)의 대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전문가의 모임의 해산에 대한 설명에 주목한 학생 1의 제안은, (다)에서 기존 연간 동아리의 활동 기간을 조정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② 장기 활동 부담을 제시한 학생 2의 조사 결과는, (다)에서 느슨한 연대 방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배경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③ 장기 모임의 장점에 주목한 학생 3의 우려를 수용한 학생 1의 제안은, (다)에서 기존 연간 동아리를 유지한 채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④ 지도 교사 배정 문제를 보완하려는 학생 2의 제안은, (다)에서 단기 활동이 피상적 경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보완책으로 반영되었다.
- ⑤ 단기 활동의 피상성을 우려한 학생 1의 제안은, (다)에서 활동 기간을 학사 일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로 반영되었다.

41. (다)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의 성향 변화를 보여 주는 사회적 흐름을 언급하며 건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교내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할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반대 입장의 주장을 직접 인용한 뒤, 그 한계를 반박하여 제안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를 활용하여 단기 모임 방식의 교육적 의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42. 다음은 (다)의 4문단에 대해 교장 선생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초고의 일부이다. 교장 선생님의 피드백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정 전] 또한, 학생회 산하에 '동아리 운영 위원회'를 두어 직접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데 학생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정 후] 또한, 학생회 산하에 '동아리 운영 위원회'를 두어 학생회가 1차로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되, 지도 교사가 최종 승인과 자문을 맡는 방식을 통해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① 학생회가 활동 계획서를 심사할 때 적용할 기준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다오.
- ② 학생회가 모든 심사를 맡는 것은 교육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교사의 역할을 함께 제시해 다오.
- ③ 학생회의 심사만으로는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결과물 관리 절차를 추가해 다오.
- ④ 지도 교사의 부담을 줄이려면 학생회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므로, 심사 주체를 교사로 바꾸어 다오.
- ⑤ 단기 동아리의 개설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개설 가능한 활동 주제를 제한해 다오.

[43~45] 다음은 학생의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환경의 날을 맞아 학교 교지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와 농업의 공존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려 함.

[초고]

최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량 농경지가 훼손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농촌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환경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농업 환경을 위협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 때문이다. 식물은 일정량 이상의 빛을 받으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 한계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작물마다 광포화점은 다른데, 영농형 태양광은 패널의 크기와 배열 각도를 조절하여 작물이 광포화점까지만 햇빛을 흡수하게 하고, 남는 빛 에너지는 패널이 흡수하여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우선,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농민은 기존의 농작물 판매 수익에 더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그늘막 역할을 하여 폭염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 기후로부터 농작물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여 주어,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일반 태양광 발전에 비해 패널을 높게 설치해야 하므로 초기 구조물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촘촘하게 세워진 기둥 구조물 때문에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를 원활하게 조작하기 힘들어져 농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

43.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 발전 부지 확보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며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배경을 드러내야겠어.
- ②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이유를 식물의 생물학적 원리로 설명해야겠어.
- ③ 영농형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를 농가 소득과 농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화해야겠어.
- ④ 영농형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를 경제적 부담과 농작업상 어려움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어.
- ⑤ 환경 보호와 농업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대안을 소개하고, 보급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분석해야겠어.

44.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마무리할 때는, 4문단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환경 보호와 농업의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야겠어.

- ① 패널의 배열을 작물별 생육 조건에 맞게 조정하고, 생산 전력의 판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관심을 기울이자.
- ② 구조물이 농기계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를 개선하고,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자.
- ③ 작물의 광포화점을 정밀하게 고려해 패널을 배치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자.
- ④ 대형 농기계 운용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농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보급 속도를 높이자.
- ⑤ 일반 태양광보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농지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자.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농업 환경 통계 자료

ㄱ-1 작물별 광포화점 비교

ㄱ-2 지속적인 폭염 시기 평균 수확량 감소율

ㄴ. 신문 기사

최근 도입된 영농형 태양광 시설 농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부에서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가 이동하려면 지지대를 3m 이상 높게 세우고 간격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철골 구조물 설치 비용이 일반 태양광 대비 30%가량 더 발생하여 농가의 초기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ㄷ. 전문가 인터뷰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설치로 인한 일시적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20년에 달하는 패널 수명 동안 전력을 판매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과 함께, 태양광 하부 환경에 적합한 작물 품종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를 고려해 패널의 크기와 배열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2문단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설계 원리로 보강한다.
- ② ㄱ-2를 활용하여, 폭염 시 태양광 하부 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적다는 점을, 3문단에서 패널의 작물 보호 효과를 보여 주는 근거로 보강한다.
- ③ ㄴ을 활용하여, 대형 농기계 이동을 위해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4문단에서 농작업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구체화한다.
- ④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을 넓혀야 하므로 설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4문단에서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 보강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구조물 설치 비용이 초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5문단에서 해결 방안으로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주어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과, 외부의 힘에 의해 주어와 동작을 당하는 피동은 파생 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이나 보조 용언 구성을 활용하는 통사적 방식으로 실현된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 비해 파생 접사를 통한 단어 형성의 생산성이 훨씬 높았다.

중세 국어의 파생적 피동 접사는 주로 '-이-, -히-, -기-'가 쓰였다. 반면 파생적 사동 접사에는 '-오/우-, -호/후-, -아/어-'와 같이 사동에만 고유한 계열뿐만 아니라, 피동 접사와 형태가 완벽히 동일한 '-이-, -히-, -기-' 계열이 공존하였다. 이처럼 동형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문맥에 따라 사동사로도, 피동사로도 기능하여 다의적 모호성을 유발했다.

이러한 파생어들은 능동문 대비 서술어 자릿수 및 문장 성분 배열의 구조적 재편을 분석함으로써 그 통사적 지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었다. 파생적 사동문은 외부에 존재하던 새로운 주체가 주어로 도입되며, 파생 이전 서술어의 타동성 여부에 따라 기존 주어의 지위가 결정된다.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서술어일 경우 기존 주어는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일 경우 기존 주어는 부사어로 강등되며 기존 목적어는 유지된다. 반면 파생적 피동문은 기존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며, 기존 주체는 부사어로 실현되거나 생략되어 문장의 필수 성분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파생어의 목적어 실현 여부나 부사어의 의미역을 파악하면 사동과 피동을 변별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동·피동 표현은 파생 접사보다 통사적 구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근대 이후 파생 방식의 생산성이 점차 약화되고 동형 접사로 인한 의미적 모호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게 하다', '-어지다'와 같이 의미가 투명한 통사적 구성이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다. 파생적 피동에 통사적 피동이 결합된 이중 피동의 빈번한 출현 역시, 모호성을 탈피하고 의미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통사적 경향의 일환이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생적 피동문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면서 파생 이전보다 서술어 자릿수가 커진다.
- ② 파생적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실현되는 대상은 자동사에서 비롯된 경우에 나타난다.
- ③ 동형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목적어의 실현 여부만으로 사동사로 변별할 수 있다.
- ④ 통사적 구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은 동형 접사로 인한 의미적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⑤ 현대 국어의 이중 피동은 파생적 피동이 통사적 피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 ㉠ 내게 부텃 기벼를 보이시니 [나에게 부처의 기벌을 보게 하시니]	- 『월인석보』
○ ㉡ 불곤 길히 보이디 아니흐느니 [밝은 길이 보이지 아니하느니]	- 『석보상절』
○ ㉢ 시름 닛기논 야기라 [시름을 잊게 하는 약이라]	- 『두시언해』
○ ㉣ 사르미 짐승의게 먹히며 [사람이 짐승에게 먹히며]	- 『법화경언해』
○ ㉤ 더운 물을 소소아 [더운 물을 솟게 하여]	- 『석보상절』

- ① ㉠의 서술어는 타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이므로, 능동문으로 전환할 경우 부사어 '내게'는 주어로, 목적어 '기벼를'은 그 통사적 지위가 유지되어 나타나겠군.
- ② ㉡의 주어 '길히'는 타동사에서 파생된 피동문의 필수 성분이므로, 이 문장을 능동문으로 전환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로 그 문법적 역할이 격하되겠군.
- ③ ㉢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아, 결합한 동형 접사가 서술어 자릿수를 늘리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은 타동사 어간에 결합한 접사가 새로운 주어의 도입을 수반하지 않은 채 파생 이전 능동문의 주어를 부사어로 강등시켜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군.
- ⑤ ㉤은 어간이 파생 이전 능동문에서 취하던 필수 성분의 개수가 유지된 채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파생 과정에서 강등된 부사어가 문맥상 생략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꽃망울 [꼰망울]	㉡ 흙일 [홍닐]	㉢ 단는 [단는]
㉣ 해돋이 [해도지]	㉤ 설익다 [설릭따]	

- ① ㉠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② ㉡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③ ㉢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④ ㉣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⑤ ㉤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2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의 용언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나뉘며, 결합하는 어미의 양상을 통해 이를 구별할 수 있다.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 '-는/니-'이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지만,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다. 한편,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두 품사로 모두 쓰이는 단어도 있다.

<자 료>

Ⓐ: 텃밭의 채소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다.  
 Ⓑ: 저 아이는 또래에 비해 키가 참 크구나.  
 Ⓒ: 우리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친구를 기다렸다.  
 Ⓓ: 밤이 늦어 사위가 고요해지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 동이 트면서 날이 서서히 밝는 모습을 보았다.

- ① Ⓐ와 Ⓑ는 모두 형태가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로, 평서문일 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 가능 여부가 다르다.
- ② Ⓐ와 Ⓒ는 모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로,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 ③ Ⓑ와 Ⓓ는 모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④ Ⓒ와 Ⓓ는 모두 문맥에 따라 품사가 구별되는 단어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동일한 형태로 실현된다.
- ⑤ Ⓒ와 Ⓔ는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결합한 단어로, 동사의 품사적 특성을 지닌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의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며, 때로는 안긴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기도 한다. 이때 안긴문장 내부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생략된 성분이 안은문장의 특정 성분과 지시 대상이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우리는 그가 땀이 나게 뛰었음을 알았다.  
 ㉡: 나는 그가 범인임을 밝혀낸 형사를 만났다.  
 ㉢: 누나는 내가 어제 사 준 옷을 입은 동생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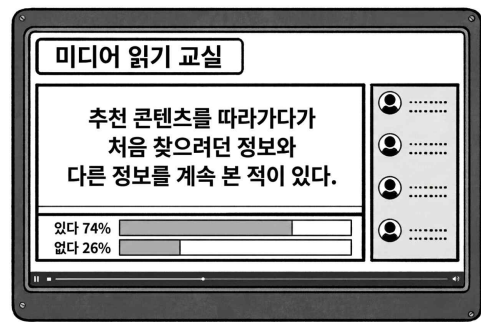
- ① ㉠의 가장 바깥에 안긴 절은 전체 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며 서술어의 필수적인 자릿수를 채워 주고 있다.
- ② ㉠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은 그 절을 직접 안고 있는 바깥 절의 부사어로 기능하며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 ③ ㉡의 가장 바깥에 안긴 절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그 절 내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④ ㉡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은 그 절을 직접 안고 있는 바깥 절의 목적어로 기능하며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 ⑤ ㉢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에서 생략된 필수 성분은 전체 문장의 목적어와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미디어 읽기 교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교육 전문가 정 박사님과 함께 추천 알고리즘이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문가: 많은 시청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시청 시간, 좋아요 등의 반응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예측해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관점의 정보가 반복적으로 ㉠ 노출될 수 있습니다.

- [A]
- 하늘 저도 환경 문제 영상을 몇 개 봤더니 비슷한 주장만 계속 추천됐어요.
  - 조약돌 그러면 추천 목록에 자주 뜨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 파도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 정보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니지만, 정보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정보가 주로 제시 되어 다른 관점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필터 버블은 확증 편향과 같은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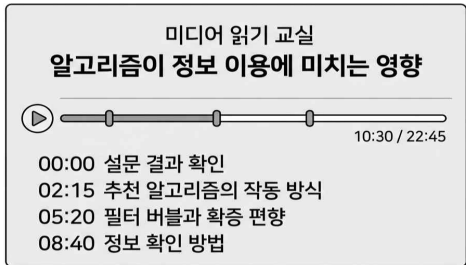
전문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은 비슷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정보 환경에 가깝습니다. 반면 확증 편향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려는 태도입니다. 다만 필터 버블은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B]
- 산호 같은 주장만 담긴 영상이 계속 뜨면, 그것이 필터 버블이고 그걸 그대로 믿으려는 태도는 확증 편향에 가깝겠네요.
  - 소리 추천 목록이 자동으로 ㉡ 배열된다면, 내가 직접 고른 정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 갈매기 광고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가: 네. 추천 콘텐츠를 볼 때는 출처, 작성자, 작성일을 확인하고 광고나 협찬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 또 핵심어에 '반론', '비판' 등을 붙여 검색하거나, 추천 목록 밖의 자료를 일부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자: 오늘 방송의 세부 내용은 하단 타임라인을 클릭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학교 누리집
[성현]님, 안녕하세요
내 정보 나가기

□□고등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

**생각 나눔**

글 제목 (댓글 수)	작성자	작성일
추천 알고리즘, 편리함만 있을까?	성현	2026.04.03.
진로 독서 활동 안내	동민	2026.05.13.
학교 도서관 이용 시간 변경	하늘	2026.05.14.

< 1 2 3 4 > 글쓰기

**추천 알고리즘, 편리함만 있을까?**      작성자: 2학년 3반 박성현

미디어 읽기 교실 영상 클립 링크      첨부파일: [정보\_확인\_점검표.pdf]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추천 알고리즘이 단순히 편리한 기능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 보여 주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비슷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정보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방송에서 설명한 '필터 버블'은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정보가 주로 제시되어 다른 관점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두 개념은 같지 않지만, 필터 버블은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추천 콘텐츠를 볼 때는 출처와 작성자, 작성일을 확인하고 광고나 협찬 표시가 Ⓞ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검색어에 '반론', '비판' 등을 붙여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을 미리 Ⓞ 익혀 두면, 추천 목록에만 기대지 않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민:** 글을 읽고 나니 추천 목록에 든 정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수:**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검색어에 '반론'을 붙여 찾아보니 다른 관점의 자료도 찾을 수 있었어. 잘 확인해보야겠네.

**하늘:** 첨부 파일의 점검표를 보니 출처와 작성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잘 정리되어 있네.

**하린:** 학교 도서관 누리집에도 관심 분야 밖의 책을 함께 보여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방송에서 다룬 화제가 시청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실시간 대화창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경험과 질문이 방송 내용과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 ③ (가)는 타임라인을 제시하여 시청자가 방송 중 진행자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나)는 하이퍼링크와 첨부 파일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된 추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나)는 댓글을 통해 본문에서 제시한 정보 확인 방법이 실제 검색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1. [A], [B]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하늘'은 특정 주제의 영상을 시청한 뒤 유사한 주장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의 '조약돌'은 추천 목록에 자주 제시되는 정보가 수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짚고 있다.
- ③ [B]의 '파도'는 추천 알고리즘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접근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 ④ [B]의 '산호'는 같은 주장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정보 환경과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다.
- ⑤ [B]의 '소라'는 추천 목록이 자동으로 배열된다는 점을 들어, 추천 목록에 제시된 정보는 수용자가 직접 고르지 않은 정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42. <보기>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기획안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집 자료]**

**추천 영상 목록**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한 영상입니다.

- △△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 정책의 숨은 문제점
- △△ 정책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 정책 반대 의견 총정리

더보기 ▼

**정보 확인 점검표**

- 출처와 작성자를 확인했는가?
- 작성일이 오래되지 않았는가?
- 광고나 협찬 표시가 있는가?
- 반대 관점의 자료를 함께 확인했는가?

자료 1
자료 2

**[카드 뉴스 기획안]**

- 카드 1: 추천 알고리즘 이용 경험 환기하기
- 카드 2: 필터 버블의 개념과 사례 제시하기
- 카드 3: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의 관계 설명하기
- 카드 4: 추천 콘텐츠 확인 방법 안내하기
- 카드 5: 학교 누리집 추천 기능 개선 방향 제안하기

- ① 카드 1을 작성할 때, (가)의 설문 결과와 (나)의 첫 문단을 활용하여 추천 알고리즘이 편리하지만 정보 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환기해야겠군.
- ② 카드 2를 작성할 때, 자료 1과 (가)의 전문가 설명을 활용하여 특정 관점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상황을 필터 버블의 사례로 제시해야겠군.
- ③ 카드 3을 작성할 때, (가)의 진행자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참고하여, 필터 버블은 수용자의 태도, 확증 편향은 추천 환경의 문제로 구별해야겠군.
- ④ 카드 4를 작성할 때, 자료 2와 (나)의 마지막 문단을 활용하여 출처와 작성일, 광고 표시, 반대 관점의 자료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해야겠군.
- ⑤ 카드 5를 작성할 때, (나)의 댓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심 분야 밖의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기능이 정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야겠군.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출될'은 피동 표현과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특정 관점의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시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배열된다면'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추천 목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③ ㉢: '보여 주기'의 '-기'는 앞말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여, 추천 알고리즘이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있는지도'의 '도'는 광고나 협찬 표시의 유무가 출처, 작성자, 작성일과 함께 확인할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익혀 두면'의 '두면'은 앞말의 행위가 끝난 뒤 그 결과 상태가 유지됨을 나타내고 있다.

[44~45] (가)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캠페인 화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고, (나)는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캠페인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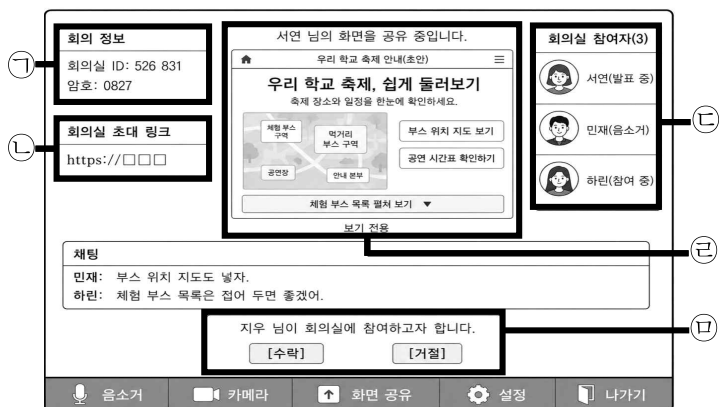
(가)

서연: 오늘은 학교 누리집에 올릴 축제 안내 화면을 최종 점검하자. 지난번에는 학생들이 축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했지?

민재: 참여자 목록을 보니 지우가 아직 안 들어왔네.

하린: 지우가 회의실 주소는 아는데 암호를 잊어버렸대.

서연: 그럼 회의 정보에 있는 암호랑 초대 링크를 다시 보내 줄게. 지우가 들어오려는 알림이 뜨면 수락할게.



지우: 늦어서 미안. 이제 보인다. 초안부터 같이 보면 될까?  
 서연: 응. 지금 보이는 초안은 보기 전용으로 공유했어. 수정할 부분은 말하거나 채팅에 남겨 줘.  
 민재: 제목은 '우리 학교 축제, 쉽게 둘러보기'가 좋겠어. 특히 '쉽게 둘러보기'를 두드러지게 하면 안내 화면의 목적이 잘 드러날 것 같아.  
 하린: 첫 화면에는 축제 장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학교 지도를 넣자. 부스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우: 공연 시간표도 놓치기 쉬우니까 첫 화면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두자.  
 하린: 체험 부스는 종류가 많으니까 목록을 처음부터 다 보이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펼쳐 볼 수 있게 하자.  
 민재: 줄이 긴 부스는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혼잡도 표시를 넣으면 좋겠어.  
 지우: 그리고 분실물 신고는 다른 기능 안에 넣지 말고, 따로 바로 가기 버튼을 두자.

(나)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회의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서연은 이를 지우에게 다시 전달하려 하고 있다.
- ② ㉧은 회의실 접속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서연은 이를 지우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 ③ ㉨은 현재 회의에 참여 중인 사람과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민재는 이를 통해 지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은 서연의 화면을 다른 참여자들이 볼 수 있게 하며, 참여자들이 화면 초안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⑤ ㉪은 회의실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입장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하며, 서연은 지우의 참여를 수락하려 하고 있다.

4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에 관한 민재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내 화면의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인 '쉽게 둘러보기'를 포함한 제목을 제시하였다.
- ② 축제 장소 안내에 관한 하린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장소 지도를 제시하고 부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다.
- ③ 공연 시간표에 관한 지우의 의견을 반영하여, 첫 화면에서 공연 시간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 ④ 체험 부스 목록의 제시 방식에 관한 하린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목록을 처음부터 모두 제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 펼쳐 볼 수 있게 하였다.
- ⑤ 혼잡도 표시를 넣자는 민재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 부스 목록 펼쳐 보기' 안에서 혼잡도 높은 부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